



한·중·일 100가지 차 맛볼 기회

전등사 22일 '차문화 교류'

한국 중국 일본의 차 1백 가지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강화도 전등사에서 차와 음악, 도자기와 서화가 어우러진 대규모 차회를 22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전등사내 가톨릭 일대에서 펼치는 것.

한국의 전통 녹차와 전등사에서 개발한 인삼녹차를 비롯, 중국의 백차 화차 흑차류, 대만의 오olong차 청관류, 일본의 말차 전차 등 1백 가지의 차들이 한자리에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1백 가지 차와 함께 전통 다식을 현장에서 선보이며, 육법공양과 한중일 행다법 시연, 차 맛을 더하는 각국의 다악 공연도 이어진다. 또 도자기 전시, 휘초제작, 한자공예, 전통음악 공연 등 전시 등 풍성한 행사들이 경내에서 펼쳐진다.

"옛 선조들이 차를 통해 문화와 정신을 나눈 것처럼 귀한 차를 달고 나누어 마시며 동양문화의 정수인 차의 향기 속으로 빠져보는 의도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는 준비위원장 범우스님은 "고려시대부터 우리 차 문화의 전통을 변천해 이어온 전등사는, 최근 경내에 국립다원을 열고, 강화 인삼녹차와 홍삼녹차를 개발하는 등 차 문화 전승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발표정도에 따른 10가지 대표적인 차를 시음할 수 있는 무료 시음코너와 무료 시음코너 등을 설치해 참가자들이 직접 차 맛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1백 가지 차를 모두 맛보기 위해서는 강화도 전등사에 미리 전화 신청을 해야 한다. (032)937-0125

이은자 기자

가을 속으로 들어간 예술인들

따사로운 가을 햇살아래 들녘의 곡식들도 황금 웃음 같아입고,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요즘, 우리 전통의 바탕 위에 현대적 미감과 창작의 묘미를 가미한 생명력 넘치는 문화 예술공연들이 있어,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롭다.

●불교전통음악, 무대언어로 올해 연이은 해외 공연 등으로 누구보다 분주한 법현스님(동국대 교수, 영산재 이수자)은 6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개막기념 창작무 '대전(大天)'을 선보여 국내외 영상예술인들의 갈채를 받았다. 법현스님이 연출과 음악을 맡고 김향남(창원대 무용과)교수가 안무한 대전은 하늘의 소리 즉 부처님의 천리인 묘음을 현대적 음악과 춤사위로 무대 언어화한 것이다. 28명 무용수의 역동적 동작과 불교음악이 어우러져 정중동의 깊은 경적 세계를 선보인 부산 공연에 이어 법현스님은 17~19일 전주 전북대문화관에서 열리는 세계소리축제에서도 세계인들에게 우리 불교음악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소리축제에서는 산사예불과 범패를 결합한 '2001-소리스펙터클'이란 제목으로 삼고시대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우리 음악의 역사를 불교정신과 사찰음악을 중심으로 펼쳐보일 예정이다.

●영산재, 미국인들에게 비구니 유일의 영산재 이수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희스님도 15~30일까지 코리아 소사이어티(한미경제인 단체) 초청으로 미국 순회 공연길에 오른다. '한국의 불교의식과 소리와 춤'이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려질 이번 미국 순회공연은 뉴욕의 심포니 스페이스 워싱턴의 케네디센터 등 주요 도시 유명 극장에서 이미 포가 매진 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희스

법현 스님
산사에불과 범패결합 '2001-소리 스펙터클'

혜안 스님
독특한 선판화 작품 잇달아 국내외 소개

동희 스님
한미경제인단체 초청 영산재 미국순회공연

이기항 교수
옷에 담은 불교이미지 대구·서울서 '의상전'

님은 공식일정 외에 워크숍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영산재와 한국의 불교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동희스님의 뉴욕 심포니 스페이스 공연은 Zev Gubur(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가 녹화해 <세계 종교음악과 춤>시리즈에 소개될 예정이다. 미국 순회 공연과 더불어 스님은 영산재의 모든 것을 담은 화보집 <한중희스님 영산재집>도 발간했다. 이 화보집은 지난 95년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영산재를 담은 것으로 영산재의 역사적 배경, 구성, 의식절차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구니로서 범패를 계보에 오른 한중희 스님의 행장을 영문과 함께 실었다.

●관화 위 '선의 경지' 불교 선(禪)관화라는 독특한 미술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혜안스님(조



○6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기념공연으로 선보인 법현스님의 '대전'은 국내외 영상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관화가 혜안스님 작 '스님이 좋아하는 연못가...'

계종 재장국장은 연이은 전시로 불자들과 만났다. 혜안스님은 20일 까지 대구 동화사 대불전 특별전시실에서 '불교관화초대전'을, 17~22일에는 아생국제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서울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의 이미지'전에서 영산재의 종합 예술적 요소를 춤과 의상, 소리와 설치미술로 재구성한 '영취산의 관화 배경, 구성, 의식절차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구니로서 범패를 계보에 오른 한중희 스님의 행장을 영문과 함께 실었다.

안스님 불교전통음악 및 선판화전'을 뉴욕 한국 문화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경에는 미국 태고사 법당건립기념 마련 목판화 초대전도 계획중이다.

●패션과 불교의 만남 불교적 이미지를 의상을 통해 표출해 온 이기항교수(한성대 의상학과)가 결혼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이교수는 10~16일 대구 섬유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제4회 패션 아트전에서 연꽃을 문양 디자인하여 불교이미지를 담은 해당 드레스 '하얀 연꽃의 새아시 1.2'를 발표했다. 이교수는 또 18~19일에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의 이미지'전에서 영산재의 종합 예술적 요소를 춤과 의상, 소리와 설치미술로 재구성한 '영취산의 관화 배경, 구성, 의식절차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구니로서 범패를 계보에 오른 한중희 스님의 행장을 영문과 함께 실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nia.com)

전시



○무유스님 작 '금니연화'

황금빛 불보살세계

무유스님 불화전 불보살과 연화의 세계를 황금빛 금니로 그려낸 보기 드문 불화전이 열린다. 17~23일까지 부산 놀원아트홀에서 열리는 '무유스님 금니불화전'이 바로 그것. 무유스님의 세번째 금니불화전인 이번 전시회에는 2년 여동안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기품관음상, 연꽃, 금니달마도 등 1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대담하고 담백한 선에서 풀어 나오는 청정함과 넉넉함 속에 담긴 내면의 열정을 한껏 맛볼 수 있다. (051)727-1216

디지털과 만다라세상

도열스님 작품전



화가 도열스님이 21~27일 서울 법원사 불일미술관에서 21세기적 티베트 만다라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는 '석도열의 디지털-더 아트 오브 만다라'전을 맞는다. 티베트 만다라의 우주적 메시지에 이끌려 붓을 들기 시작한 스님은 그동안 만다라를 소재로 한 유화 작품 개인전을 6차례나 가졌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그동안의 작업에서 벗어나 컴퓨터라는 도구를 사용해 전혀 새로운 양식의 만다라화를 선보인다. 스님이 직접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용, 만다라의 이미지를 변형 조합해 '생명의 노래' '코스모스-여정(사진)' 등 35점의 새로운 만다라를 표현해 냈다. (02)733-5322



○정정웅 작 '적막강산봉'

과감한 생략의 결과

정정웅 선화전 종전 사진작가로 활동하다 지난 1978년 화가의 길에 들어선 후 20년간 수묵의 변용이 표출하는 선화 작업에 몰두 해 온 화가 정정웅씨가 18~24일 갤러리 서호에서 다섯 번째 선화전시회를 연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그동안 경남 양산에 나향해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제작한 것들로 과감한 생략과 절제의미를 살린 21점의 연작이다. (02)723-1864

북한산 심곡암 21·22일 '단풍축제'

"너와 나 우리, 그리고 만물이 하나!" 무르익은 가을 단풍 속에 부처님 말씀이 예술과 어우러진 제2회 북한산 심곡암 단풍문화축제가 21~22일 열린다. 북한산 형제봉 아래 자리잡은 심곡암 도량에서 열리는 이번 단풍축제는 21일 오후 2시 정일스님 초청법문으로 시작된다. 심오한 선(禪)의 묘리를 스님께 직접 들으며 자연과 인간, 진리와 삶이 하나임을 깨닫는 법석을 여는 것이다. 이어 경내를 향그러운 다함으로 채울 보타다도회 강경순회장의 다도시연과 무형문화재 가사 이수자 41호 박종순씨의 우리 시조 낭송, 클래식 기타리스트 서승환씨의 연주,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의 노래와 승무



공연이 산사의 가을을 한껏 달콤 예쁘게 한다. 또 29일까지 경내에 단풍과 어우러진 선화가 기원스님의 선서화전도 열려, 모처럼 산사를 찾은 불자와 참배객들에게 가을의 정취와 문화적 향취를 맘껏 즐기게 해 줄 것이다. 주지 원경스님은 "굳이 멀리 있는 설악산을 찾지 않더라도 가까운 산사에서 계절의 변화속에 숨쉬는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문화적으로도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자는 의도에서 단풍문화축제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단풍문화축제를 열어, 더 가깝고 친근한 사랑의 면모를 더지는 데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02)914-8860

이은자 기자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입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B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달음의 묘리를 본다.

'봐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계율'을 통해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허운(虛雲) 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깨달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의 '실질'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조선 시대 선사 4인의 선시 모음집

모든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선상한야유아독론'

101 - 교리·입문편

102 - 교리·입문편

201 - 생활불교편

202 - 생활불교편

301 - 선(禪)편

302 - 선(禪)편

303 - 선(禪)편

401 - 문학편

501 - 문화·학술편

502 - 문화·학술편

법수로 배우는 불교

깨달음으로 재가 불자를 위한 올바른 순서 계율 강좌

참선요지 (參禪要旨)

방편개시 (方便開示)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허공의 팔곡집

불성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일리시야 무라도 공저 김홍근 관역 06 번정 292쪽 / 값 5500원

이재일 저음 06 번정 196쪽 / 값 4500원

조철 스님 관역 06 번정 196쪽 / 값 4500원

예능 스님 역음 06 번정 330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승(大乘) 스님 옮김 06 번정 278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승(大乘) 스님 옮김 06 번정 278쪽 / 값 5500원

민영조 저음 06 번정 336쪽 / 값 6000원

이종진 저음 06 번정 352쪽 / 값 5000원

전치수 저음 06 번정 196쪽 / 값 4500원

김동서 저음 06 번정 192쪽 / 값 4500원